

한국소비자원 기관 리포지터리 PPT 설명 자료

1 페이지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정보자료실 박선미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요코하마에서 JSLA 선생님들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저는 한국소비자원 정보자료실에서 소비자정보 오픈엑세스 참여를 위해 구축한 기관 리포지터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정보자료실은 소비자정보 기관 리포지터리 구축을 위해 국가지식 정보 콘텐츠 공유를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OAK 사업에 참여하여 기관 리포지터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오픈 액세스 코리아 OAK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페이지



말씀드릴 목차는 한국소비자원 소개, 한국소비자원 기관 리포지터리, 국립중앙도서관의 오픈 액세스 코리아 OAK 순입니다.

3 페이지



한국소비자원 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소비자전문기관입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1987년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경제기획원 산하 기관으로 출범 하였습니다. 2007년 시장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법령이 변경되었고 기관명도 한국소비자원으로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소속도 공정거래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본의 국민생활센터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페이지



현재 조직은 11개부서로 약 34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보자료실은 소비자정보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크게 사전예방업무와 사후구제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예방업무는 정책연구, 시장조사, 소비자안전, 시험검사, 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 업무
 사후구제업무로는 소비자불만 처리와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업무가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들의 불만 피해구제는 소비넷이라는 상담업무 시스템을 통해 DB로 저장되어 사전예방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업무가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관련 법령정비, 불합리한 소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를 진행하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7 페이지



시장조사사업입니다. 소비자 친화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약관조사, 국경간거래, FTA 등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8 페이지



상품 품질비교 시험을 통해 제품의 비교정보 및 제품의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시험결과 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정책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시험결과 보고서 등은 한국소비자원의 소중한 발간 정보자료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정보자료실에서는 이러한 결과물인 발간자료를 수집하여 등록 관리하며 보관하고 있습니다.

9 페이지



한국소비자원의 기관 리포지터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정보자료실 홈페이지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정보자료실은 1987년 9월에 개설하여 현재 1만7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법, 소비자경제, 소비자정책, 소비 트렌드 등 소비자관련 정보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주요 이용자는 원내 직원이며, 정보자료실 담당 인원은 2명입니다.

도서관리시스템에 원문을 등록한 소비자정보 자료는 기관 리포지터리로 자동 연계되어 OAK를 통해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 페이지



오픈 액세스의 정의는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전 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학술정보에 접근하도록 하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정보자료실도 소비자정보를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오픈 액세스를 통해 소비자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 페이지

II. 韓國消費者院 IR

KCA IR 構築 必要性

기관 리포지터리의 역할은?

KCA 발간자료 장기보존 및 디지털화

개방형 표준 준수로 자료 공유 확대

KCA 정보 외부 확산으로 적극적인 기관 홍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발간자료의 장기보존과 디지털화, 소비자정보의 공유와 확대 등의 필요성에 의해 기관 리포지터리의 역할이 요구되어졌습니다.

12 페이지

區分	推進 內容
2010年	- OAK-IR 示範機關 選定(KISTI)
2011年~2014年	- KCA 發刊 資料 原文 digital 作業 推進 - KCA Homepage 資料 OAK Link 提供
2015年	- OAK 改善 支援事業 選定(國立中央圖書館) - 情誼資料庫 圖書管理 system, OAK system 連繫 推進
2016年	- 情誼資料庫 圖書管理 system, OAK system 連繫 - 發刊 資料 原文 入力, Metadata 管理 機能 改善 進行

한국소비자원 기관리포지터리 연혁과 추진내용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2010년 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관리 및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형 기관 리포지터리 오픈 액세스 코리아 OAK(Open Access Korea) 보급사업을 시작하면서 참여 기관을 모집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OAK사업에 참여하여 기관 리포지터리 구축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OAK 시작하였고

2011년~2014년까지는 원문이 없는 자료는 디지털화 작업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OAK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오픈소스 버전 5.1로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도서관리시스템에 기관 리포지터리를 연계하여 도서관리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면 원문정보가 기관 리포지터리로 자동 연계되고 이는 다시 OAK로 축적되어 소비자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I. 韓國消費者院 IR

KCA IR 構築 情報 現況(2016.9)

區分	內容	提供件數	提供 方法
KCA 報告書	政策研究報告書 安全報告書 調查報告書 試驗報告書 其他	962	圖書館理system → OAK 連繫
KCA 刊行物	消費者問題研究 消費者政策動向	361	
KCA 情報	KCA News 紛爭調停決定事例	1,600	KCA Homepage Link 連繫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현재 한국소비자원의 기관 리포지터리는 KCA 보고서, KCA 간행물, KCA 정보로 커뮤니티 콜렉션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KCA 보고서, KCA 간행물은 도서관리시스템에서 연계되었으며, KCA 정보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링크로 연결되어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구축종수는 2,923여 건입니다.

II. 韓國消費者院 IR

KCA IR 構築 成果

품질 개선 전 품질 개선 후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기관 리포지터리 구축 성과로는 개원초기에서 2010년 이전에 발간된 자료의 대부분이 원문이 없는 상태였는데, 책자를 스캔하여 원문 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원문이 구축된 자료는 보존과 공유에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 페이지



또한 발간 저자의 발간물을 한곳에서 모두 검색 가능하게 되어 저자별 자료 현황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어 저자들이 본인의 자료 구축과 보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16 페이지



그동안 원문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와서 확인해야 이용할 수 있던 보고서가 OAK를 통해 공유가 가능하다 보니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구축 성과의 하나라 하겠다.

이용현황은 구글통계로 확인이 가능하여 OAK를 통해 우리원의 소비자정보가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이용되는지 이용자 행태를 알 수 있어 향후 연구보고서 등 과제 수행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 페이지



한국소비자원 기관 리포지터리 홈페이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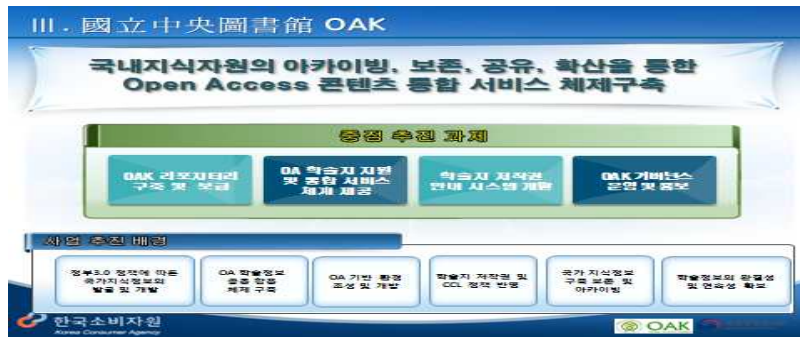
저작권정책 수립과 영문자료 제공 등 아직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이 있지만 소비자정보 보존과 공유의 한걸음이라 생각하고 한국소비자원의 기관리포지터리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오픈 액세스 코리아 OAK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 페이지



19 페이지



국내지식자원의 아카이빙, 보존, 공유, 확산과 OA 콘텐츠 통합 서비스 체제 구축을 목표로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의 OAK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점 추진 과제로는

OAK 리포지터리 구축 및 보급

OAK 학술지원 통합서비스 체계 제공

학술지 저작권 안내 시스템 개발

OAK 거버넌스 운영 및 홍보를 들 수 있습니다.

20 페이지



2010년 KISTI에 의해 한국형 기관 리포지터리로 개발된 OAK는 미국 DSpace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2010년 7개 기관 참여로 시작하여 매년 신규 참여 기관을 늘려나가 2016년에는 41개 기관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어 국가지식 정보 구축 및 확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OAK의 특징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세미나자료, 강의자료 등 다양한 지식정보를 아카이빙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21 페이지



OAK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현황입니다.

연구소 19개, 의학도서관 5개, 공공기관 5개, 정보센터 4개, 대학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 빨간색으로 표시한 12개 기관은 한국전문도서관 소속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22 페이지



2010년 7개 기관으로 시작하여 2016년 41개 기관 50여 만 자료가 OAK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23 페이지



OAK를 통한 참여한 각 기관의 리포지터리와 자체적으로 OA를 구축한 전문 기관의 리포지터리, 학위논문 dCollection 등이 OAK 포털을 통해 모여져 전 세계로 학술정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4~27 페이지 생략

28 페이지

이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기관 리포지터리 구축과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JSLA와 KSLA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기관 리포지터리 추진 방향과 정책 수립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JSLA와 KSLA 전문도서관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